

관광자의 거주지 특성에 따른 관광행태 연구

송 영 철*

A Study on the Domestic Behavioral Patterns of Korean Tourists by the Characteristics of Residences

Youngchol Song*

요약 : 본 연구는 관광자의 거주지 특성에 따른 관광행태의 차이점을 통계적 방법에 의해 분석하여 연구한 것이다. 그 결과 거주지 특성에 따라 많은 차이점들이 발견되었으며, 특히 14개의 관광행태의 범주에서 11개가 도시·농촌별 특성과 일치하였고, 권역별로는 단 4개만이 일치하였다. 이는 도시와 농촌간의 사회, 경제, 문화의 격차가 관광행태 면에서도 그대로 나타나고 있음을 입증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향후 국토개발 계획을 수행함에 있어 이와 같은 문제를 염두에 두고 노력해야 하며, 국내 여행자들에게 여행의 기회를 균등하게 배분함으로써 외래 관광객에 대한 국민적 자존심을 회복시켜야 할 것이다.

주요어 : 관광행태, 거주지 특성, 목적지 선택유형, 여행정보구득, 여행동반자

Abstract : In this study we shall compare the differences among Korean tourists' behavioral patterns according to tourists' residences by using statistical techniques on questionnaires for 1,372 tourists around Korea. In conclusion, we found varying degrees of influences among touristic behaviors in relation to residences. We documented 11 out of 14 categories of touristic behaviors in urban/rural areas around Korea. And there were 4 out of 14 categories of those found in provincial areas. Characteristics of urban/rural areas had a significant influence on touristic behaviors compared to provincial areas. Therefore, tour authorities provide for a balanced policy of travel around Korea. As mentioned above, these touristic behaviors had many differences according to urban/rural areas and provinces. We are concerned that these differences are likely to cause psychological disturbances among social classes. I hope that these results will be reflected in the development policies of tourist goods and tour sites.

Key Words : touristic behavior, characteristics of residences, types of destination choice, acquirement of the travel information, travel companions

1. 서론

1) 문제 제기와 연구 목적

우리나라의 관광개발은 부족한 외화의 획득수단으로서 1960년대 이후 경제개발계획과 국토종합개발계획에 따라 중앙정부의 강력한 계획과 통제 하에 이루어졌으며, 지방에서 자체적으로 추진한 관광개발은 거의 없었다. 1980년대에 들어와서 생활수준의 향상, 의식수준의 변화 등으로 국민관광이 활발해지면서 외화유치 차원의 국제관광 일변도에서 탈피하여 국민관광부문 진흥으로 눈을 돌리게 되었다.¹⁾ 1990년대에 들어와서야 비로소 전국 관광종합개발계획이 수립되어 소규모 개발사업은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개발토록 하고, 대단위 관광개발

사업은 중앙정부에서 개발하는 것으로 역할분담이 되었다.

그러나 지자체의 관광지 개발이 그 내용 면에서 1980년대의 대규모 리조트 또는 획일적인 국민관광지 개발패턴에서 벗어나지 못하였고, 그 결과 국민들의 여가수요 조차 충족시키지 못할 뿐만 아니라 외국관광객의 유치에도 한계를 드러내고 있어 최근 '한국관광의 위기'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다고 한다(강신겸, 1997). 이는 그 동안 우리나라의 관광이 양적 성장은 크게 이루어졌을지 모르나, 질적으로는 문제점이 많다는 지적이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관광 실태에 대해 좀 더 자세히 분석하고 각종 문제점을 밝혀 그에 대한 대책 마련을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다.

인간은 집단을 형성하고 사회를 이루어 생활하

* 살레시오여자고등학교 교사(Teacher, Salesian Girls' High School)(youngcholsong@hanmail.net)

면서, 제각기 살아가는 지역 속에서 타고난 생리적 욕구 뿐 만 아니라 후천적으로 습득된 사회적·문화적 제 욕구를 충족시켜 나간다(Freedman, R., Hawley, A. H., Landecker, W. S. & Lenski, G. E., 1956). 관광은 기본적으로 개인의 즐거움과 휴식을 위한 여행으로서 대부분 그들이 속해있는 공동체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하나의 사회현상(Social Phenomenon)으로 해석할 수 있다. 또한 관광객은 여행을 통해 직접적 또는 상징적으로 현실에 대한 정복감을 느끼고, 자아영역을 확대시켜 나간다. 그로 인해 관광은 생활의 변화, 교육적 지식, 아름다움과 놀라움, 자기실현, 휴식 등 인간의 욕구 충족을 위한 수단이 된다.

그러나 관광객 개인의 수준이 각기 다른데다가 공급 또한 한계가 있어 모든 욕구를 충족시켜줄 수는 없다. 수요와 공급의 불균형은 사회 전반적인 현상 속에서 사회 경제학적 변수에 따라 집단 간의 차이를 유발하고 있다. 그로 인해 발생하는 계층 간의 갈등, 지역 감정, 문화의 세대차이 등이 사회의 곳곳에서 가시적인 형태로 그 문제점을 드러내고 있다. 관광 면에서도 이러한 문제가 서로 다른 계층 간에 심리적 갈등을 유발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될 일이다.

개발 도상국 시절 우리나라의 불균형적인 경제 개발은 사회, 경제, 교육, 문화의 전반적인 분야에서 지역적으로 큰 차이를 유발시켰다.²⁾ 도시와 농촌의 차이는 말할 것도 없고, 생활권역별 차이도 만만치 않다. 따라서 도시·농촌간의 차이나 지역간의 차이가 인간 행태에 미치는 영향은 관광분야에서도 중요한 연구대상이 될 수 있다고 본다.

이러한 차이는 거주지의 소득과 교육 수준은 물론이고 그 밖의 지역적 특성에 따라서도 나타나는데, 예를 들면 인터넷 보급과 같은 지식 정보 수준에서도 지방중소도시나 농촌은 대도시나 수도권과 크게 차이가 날 수 있다.³⁾ 이로 인해 지역 간에 주민의 행동양상에도 차이가 있을 뿐 아니라 관광정보의 습득, 관광계획 수립 등 동기 면에서도 많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대도시지역이나 수도권에 거주하는 사람들은 농촌이나 지방중소도시의 주민보다 여행 성향이 높을 것으로 추정해 볼 수 있다(Wells, W.C. & Guhar, G., 1966). 또한 여행의 형태, 여행동반자의 유형, 그리고 정

보의 구득유형 및 교통수단의 이용 등의 관광행태 면에서도 도시와 농촌간 또는 지역 간에 따라 차이를 보이게 될 것이다. 관광 공급자의 차원에서는 관광객들의 개인차나 집단차를 반드시 고려하여, 그에 따른 상품을 마련하여 그들의 욕구가 최대한 충족될 수 있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다.

그 동안 국내의 연구로서 사회·경제적 특성에 따른 관광행태에 관한 논문들을 보면, 먼저 오남삼(1991)의 서귀포의 주민들을 대상으로 한 관광행동과 동기 및 관광의식에 대한 연구가 있다. 이 연구에서 서귀포 주민은 사회계층에 따라 동기 및 의식의 차이가 뚜렷이 나타났으며, 특히 적극적 동기 의식을 갖고 있는 주민들은 자연관광지를 선호하고 있고, 공간의식이 넓고 관광자원의식이 강하면서도 관광영향의식에서는 비판적인 성향을 보여주고 있다고 하였다. 그러나 이 논문은 외부 관광객들을 대상으로 하지 않고 관광지의 주민들을 대상으로 연구하였으므로 본 논문의 목표와는 그 방향이 다르다고 할 수 있다.

한편 박현정(1993)은 복합변수지표를 사용하여 관광행태를 연구하였는데, 이 연구에서 미국 인구통계국의 SES 지표⁴⁾에 따라 조사대상자를 상층, 중상층, 중하층, 하층의 네 계층으로 분류하고, 사회계층과 관광의 사회·심리적 요인과의 상관성을 밝혔다. 그 결과 상층은 관광이 전문 확대와 도전의 욕구 및 에너지 재충전의 욕구를 충족시켜줄 것으로 지각하고 있으며, 관광경험 후에도 이에 대한 만족한 평가를 내렸다. 반면에 하층은 다른 계층에 비해 관광에 대한 기대나 관광이 가져온 편익에 대한 평가가 부정적이었다. 그러나 이 논문에서는 연구 지역을 서울특별시로 제한하고 있기 때문에 전국적인 현상이나 서로 다른 거주지의 특성에 따른 관광행태는 밝히지 못했다.

그 동안 국내외를 막론하고 관광객의 특성에 따른 관광행태에 관한 연구에서는 주로 관광 의식이나 동기 및 여행형태의 차이를 다루는 논문이 많았다.⁵⁾ 그러나 대부분 연구지역의 범위를 관광지로 국한시킨 논문들이었고, 관광객의 거주지를 대상으로 한 연구라 할지라도 거주지 차이를 다루는 경우는 거의 없는 것 같다. 경제, 사회, 문화 등 다른 분야에서와는 달리 관광분야의 연구에서는 지역 차에 관한 문제가 소외되고 있는 현실이다.

본 논문은 거주지의 특성에 따라 달라지는 관광행태의 차이점을 알아보기 위한 것이다. 그러기 위해 먼저 관광객들의 거주지를 몇 개의 그룹으로 구분하고, 그 그룹에 따라 여행경험, 여행동반자 유형, 목적지 선택 유형, 교통수단의 이용, 여행정보의 구득, 구매활동 등에서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를 파악하였다. 나아가 그 차이에 영향을 미치는 거주지 특성들을 서로 비교하여 어떤 특성이 관광행태에 가장 크게 영향력을 미치는가에 대해 알아봄으로써 앞으로의 관광 정책에 있어서 좋은 방향을 모색하기 위한 시사점을 밝히는데 그 목적이 있다.

2) 연구 범위와 분석 방법

조사기간은 2000. 2. 11~2. 18까지 8일간이었으며, 전국의 1,372명으로 20세 이상 70세 미만의 성인 남녀를 대상으로 조사하였고, 전국의 성별, 연령별, 지역별 인구분포에 따라 표본 조사를 하여 분석하였다. 조사 대상자의 사회·경제적 특성에 따른 집단 분류와 표본 수는 <표 1>와 같다.

관광자의 거주지는 도시·농촌별과 권역별의 두 가지로 크게 구분하고, 도시·농촌별은 7대도시, 시부, 군부 등 3개, 권역별은 생활권과 지역성을 고려하여 수도권, 영남권, 충청·강원권, 호남권 등 4개로 분류하였다. 도시·농촌별 분류에서 7대도시는 서울특별시를 비롯하여, 부산, 대구, 광주, 인천,

대전, 울산 등의 6대 광역시를 포함한 지역이고, 시부는 시청소재지로서 중소도시에 해당하는 지역이며, 군부는 이들 지역을 제외한 대부분의 농촌지역을 말한다. 권역별 구분에서 수도권은 서울과 인천을 중심으로 하여 경기도를 포함한 지역이고, 영남권은 부산, 대구를 포함한 경상남북도를 말한다. 충청·강원권은 대전광역시를 포함하여 충청남북도 와 강원도를 합한 지역이며, 호남권은 광주광역시를 포함한 전라남북도 지역이다.

관광행태는 해외여행경험, 가족여행경험, 여행동반자, 여행정보획득, 교통수단이용, 구매활동 등으로 구분하여 조사하였으며, 이들의 차이점을 소집단별로 분석하였다. 조사방법은 전화조사 (telephone survey)로 하였고, 분석 방법으로는 거주지 특성 (도시·농촌별, 권역별 등)의 각 집단 간의 관광행태(여행경험, 여행정보구득, 여행동반자 선택 등)에 있어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가를 알아보기 위해 교차분석을 하였다. 한편 거주지 특성에 따른 영향력을 비교하기 위해 먼저 표집 지역을 대상으로 하여 소지역 간의 사회·경제적 특성을 비교하였다. 이를 위해 교육수준과 소득수준을 종속변수로 하고, 도시·농촌별, 권역별을 독립변수로 하여 분산분석을 통해 평균차를 산출하였다. 여기서 산출된 소지역 간의 평균차와 교차분석의 결과를 비교하여 영향력 차이를 알아보았다.

<표 1> 조사대상자의 사회·경제적 특성

사회·경제적특성	집단	응답자수(명)	구성비(%)
성	남자	691	50.4
	여자	681	49.6
나이	20대	342	24.9
	30대	403	29.4
	40대	291	21.2
	50대	206	15.0
	60대	130	9.5
도시·농촌별	7대도시	680	49.6
	시부	535	39.0
	군부	157	11.4
권역별	수도권	635	46.3
	영남권	399	29.1
	충청 강원권	181	13.2
	호남권	157	11.4
전체		1,372	100.0

2. 관광행태와 관광의 기본적 욕구

1) 관광행태

사회·경제학적 특성에 따른 관광행태를 알아보기 위해서는 먼저 관광행태에 관한 개념 정리가 선행되어야 한다. 그러나 학자들에 따라 그 해석이 매우 다양하기 때문에, 그 개념들을 기반으로 하여 본 논문에서 사용한 개념들을 정립해 보고자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관광, 관광행동, 관광자행동 등의 인접 개념에 대한 정리를 할 필요가 있다.

末武直義(1980)는 관광과 관광여행을 구분하여 정의하였는데, 관광여행은 공간적 왕복과정과 목적지에서의 행동 그리고 체재 과정을 포괄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관광은 체재지에서의 행동으로 국한시키고 있다. 그러나 국제관광전문가협회(IASET)에 따르면 관광이란 거주나 경제적 소득활동과 관계되지 않는 여행과 체류에서 발생하는 제반 현상 및 그들의 상호관계라고 하였다(Bukart, A.J. & Medlik, S., 1980). 물론 여기에는 업무여행이나 직업여행 등이 포함될 수도 있다. 본 논문에서는 후자의 관광개념을 바탕으로 하여 관광행태의 개념을 정립하였다.

관광 그 자체를 인간의 개인적인 행동으로 본다면 관광행동과 관광자행동을 동일시할 수 있겠으나, 좀 더 엄밀히 규정하자면 관광행동은 관광자의 이동, 체재, 레크리에이션 등의 행동을 총망라한다고 볼 수 있다. 관광행동은 관광자수에 의해 개인행동과 집단행동, 관광목적에 의해 일반행동, 특수행동 등으로 분류할 수 있는데(김성혁, 1994), 위락여행, 모험여행, 교육여행, 가족여행 등은 일반행동에 속하고, 업무여행이나 직업여행 등은 특수행동에 속한다고 볼 수 있다. 관광자행동(tourists' behavior)이란 관광자가 관광과 관련하여 돈, 시간, 노력 등의 제한된 자원을 어떻게 배분하기로 결정하는가에 관한 행위이다. 즉 관광자행동은 계획단계에서의 기대, 관광지이동, 관광지행동, 귀가, 회상 등 5단계에 걸쳐서 일어나는 일련의 모든 행동을 포함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김용상, 1999).

관광행태(touristic behavior)란 이동, 체재, 레크리에이션 등으로 규정할 수 있는 관광행동과 계획에서부터 회상에 이르는 5단계의 관광자 행동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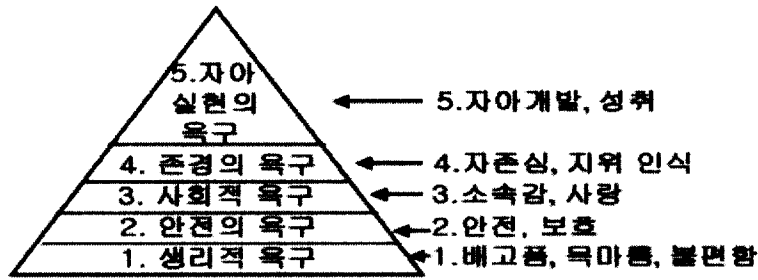
다른 변수에 의해서 결정되는 그 결과의 집합체라고 할 수 있다. 즉 관광자의 각종 단일행동들을 관광행동 또는 관광자 행동으로 본다면, 이들의 집합적인 유형(pattern)은 관광행태인 것이다. 관광은 여행이라는 행위로 이루어지는 것이 보통이다. 이러한 점에서 여행 패턴이라는 유사 개념과 혼용되고 있다. 일반적으로 관광행태 또는 여행패턴은 여행목적, 교통방식, 여행거리, 기간당 여행수, 여행일수 등으로서 정의되며, 배출지와 목적지에서 발생하는 관광자의 행동 변화는 특별한 관심거리가 된다. 이와 같은 관광행태는 관광자의 사회·경제적 특성과 거주지 특성 등 관광자의 배경에 따라 차이를 보일 수 있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먼저 관광행태를 해외여행경험, 가족여행경험, 목적지 선택유형, 여행정보구득유형, 여행 동반자 유형, 교통수단이용, 구매활동 등으로 구분하였다. 그리고 각각의 거주지 특성에 따른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 소그룹화한 집단, 즉 도시·농촌별(7대도시, 시부, 군부), 권역별(수도권, 영남권, 충청·강원권, 호남권)에 따라 그 차이점을 분석하였다.

2) 관광의 기본적 욕구

관광은 기본적으로 인간의 심리적 욕구에 기인한다. 또한 그 욕구에 따른 행동은 인간의 사회·경제적 특성에 따라 다르게 나타난다. 따라서 욕구를 만족시키는 인간의 행동단계를 알아보고, 관광행태의 차이점과 연관지어보고자 한다. 심리학자인 매슬로는 욕구를 만족시키는 인간행동에 대해 5가지 계층의 욕구단계설(Maslow, A.M., 1954)을 주장하였다.(그림 1)

인간에게는 배고픔, 목마름, 불편함과 같은 생리적 긴장상태에서 일어나는 생리적 욕구와, 안전에 대한 욕구, 그리고 소속감, 사랑 등의 애정욕구, 자존심, 지위 인식과 같은 존경욕구, 자아개발, 성취와 같은 자아실현욕구가 있다. 매슬로는 이러한 욕구 중에 최초의 단계인 생리적 욕구가 가장 중요하고 사회적 욕구에서 자아실현의 욕구로 갈수록 그 중요성은 덜해 진다고 하였다. 이러한 욕구 단계는 하위의 단계가 충족되어야만 다음 단계의 욕구가 나타난다는 것이다.



출처 : 김성혁, 1994. 관광학 원론, 서울, 형설출판사, p.69.

〈그림 1〉 매슬로의 욕구 단계설

일반적으로 최초의 생리적 단계에서는 관광 동기가 발생하지 않는다. 빈곤한 사회에서는 저차원적인 생리적 욕구가 강렬하므로 먹을 것, 입을 것 등에 관심을 쏟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이같은 생리적 욕구가 충족되는 풍요로운 사회가 되어야만 고차적인 욕구에 의해서 관광을 하고 싶어질 것이다. 또한 다음 단계인 안전욕구단계에서도 관광은 발생하지 않는다. 안전욕구는 미지의 세계의 불안감보다는 친밀한 세계를 선호하려 들기 때문에 관광의 욕구는 나타나지 않을 것이다.

다음의 사회적 욕구 단계에서는 소속감이나 연대감을 중요시하여 각종 친교활동을 통한 관광을 원하게 된다. 가족, 친구, 직장동료, 친목단체 등과의 여행은 바로 이러한 욕구에서 비롯된다고 할 수 있다. 도시생활에서 오는 무기함과 소외감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관광을 통한 다른 사람들의 흥미 있는 생활과의 만남이 중요하다. 소속·애정 욕구가 충족되면 존경이나 위광, 명예, 지위 등에 대한 욕구가 나타난다. 이 욕구에는 성취, 독립, 지배, 자신감 등의 욕망과 남에게 인정받고 존경받고 싶어하는 것 등이 포함된다. 다른 사람들이 경험하지 못한 해외여행이나 유명 관광지로의 여행은 매우 자랑스러운 것이어서 인간의 존경욕구를 만족시키기 위해 충분하다. 이것은 자신의 성공과 업적을 나타내는 것일 수도 있기 때문에 더욱 그러하다.

매슬로의 동기배경에서 보면 관광은 그의 욕구 단계설의 정상상을 향한 욕구를 만족시킬 수 있는 것처럼 보여진다. 사람들은 그들의 자부심을 충족하거나 다른 사람들로부터 인정을 받으려는 수단으로써 관광을 추구할지도 모른다. 그러나 사람들은 더 근본적인 욕구가 충족되지 않는다면 그렇게

하지 않을 것이다. 관광은 굶주리고 가난한 사람에게 중요하지 않기 때문이다.

따라서 관광행태는 관광자의 사회·경제적 지위 뿐만 아니라 그들이 거주하고 있는 지역의 교육수준, 소득수준에 의해서도 달라진다고 할 수 있다. 즉 도시에 거주하는 사람과 농촌에 거주하는 사람은 관광동기, 관광정보의 선택, 동반자의 선택, 여행형태 등의 면에서 질적 차이를 보이게 될 것이다. 또한 생활권역별로도 그 지역의 사회·경제적 여건의 차이에 따라 관광행태는 달라진다고 할 수 있다.

본 논문에서는 인간의 욕구 단계설에서 알아본 바와 같이 관광에 대한 욕구도 관광자가 속해 있는 집단과 거주지의 특성에 따라 달라진다는 점을 전제로 하여 연구하였다. 따라서 도시·농촌, 생활권역 등의 거주지를 소집단으로 분류하여 관광행태의 차이점을 알아보고, 결론적으로 관광행태는 이 특성들 중 어떤 요인에 더 크게 기인하는가를 찾아보고자 한다.

3. 거주지의 사회·경제적 특성

관광행태는 일반적으로 관광자 개인 뿐만 아니라 그가 속해있는 집단의 소득수준, 교육수준에 따라 달라진다고 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도시·농촌별과 권역별에 관한 변수를 사용하게 되므로 도시·농촌 간의 경제력 차이와 지역 간의 경제력 차이에 대해 먼저 알아야 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국내에 현존하는 객관적인 자료 중에 도시와 농촌을 비교할 수 있는 자료를 찾기가 어렵고, 지역 내 총생산의 경우에도 도 단위까지는 산출되어 있으나,

〈표 2〉 도시·농촌별 교육년수 비교

시 군별 자료는 구비되어 있지 않아 도시·농촌별 경제력 차이는 밝힐 수가 없다. 또한 통계청 자료에서 구할 수 있는 지역 내 1인당 생산(GDP)이란

훨씬 컸다.

〈표 3〉는 도시·농촌별 교육년수 비교를 나타낸 것인데, 군부와 다른 지역간의 비교에서 통계적

〈표 3〉 도시·농촌별 소득 비교

생산 중심의 소득 차이를 나타낸 것이기 때문에 지역 간의 소득 차를 밝히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⁶⁾

진정한 의미에서의 지역 간 소득 차는 분배 중심의 소득 차이를 알아보아야 하는데, 이를 위해 객관적인 자료를 구하기가 매우 어렵다. 또한 관광은 소득 차에 의해서만 달라지는 것이 아니라 교육 문화적 특성에 의해서도 영향을 받는다. 따라서 도시·농촌별, 권역별의 사회·경제적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서 표집 집단을 중심으로 소득 수준별, 교육수준별 차이를 산출하여 그 결과와 관광행태를 비교하였다.

이를 위하여 교육, 소득 수준을 종속변수로 하고 도시·농촌별, 권역별을 독립변수로 하여 분산분석을 통해 평균차를 비교하였다. 도시·농촌간의 소득 수준과 교육수준의 평균 차는 〈표 2〉와 같다. 분산분석의 결과 7대도시와 시부의 차이($p=0.070$)를 제외하고 모두 유의한 차이점을 보이고 있는데 ($p=0.000 \sim p=0.018$), 평균차를 보면 7대도시>시부>군부의 순으로 나타났다. 7대도시와 시부의 차이(16.9488)보다 시부와 군부의 차이(36.6796)가

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p=0.000$). 지역 간의 차이를 보면 소득 차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7대도시>시부>군부의 순이었는데, 7대도시와 시부의 차이(0.37)보다 시부와 군부의 차이(2.65)가 훨씬 컸다. 따라서 도시·농촌별로는 소득수준과 교육수준의 차이가 다같이 관광행태의 비교에 적용할 수 있다.

〈표 4〉는 권역별로 본 소득 비교인데, 수도권과 호남권의 비교에서만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p=0.000$). 권역별로 비교해 보면, 수도권>영남권>충청·강원권>호남권의 순으로 나타났는데, 영남권과 충청·강원권의 차이(0.1350)가 매우 적게 나타났다. 〈표 5〉는 권역별 교육년수를 비교한 것인데, 통계적으로는 수도권과 충청·강원권의 차이만 유의하게 나타났다($p=0.016$). 평균차를 비교해 보면, 소득차와는 달리 수도권>호남권>영남권>충청·강원권의 순으로 나타났는데, 지역 간의 차이는 그다지 크지 않았다(0.39-0.40).

이상에서 알아본 바에 따르면 도시·농촌별로는 소득차나 교육수준 차이가 뚜렷히 나타나는 데 반

〈표 4〉 권역별 소득 비교

하여, 권역별로는 소득차이는 나타나고 있으나 교육수준 별로는 별 차이를 보이고 있지 않다. 또한 도시·농촌별 차이에 있어서도 7대도시와 시부의 차이는 그다지 크지 않는 반면에 시부와 군부의 차이는 매우 뚜렷이 나타났다. 권역별로는 소득의 차이가 교육수준의 차이보다 더 뚜렷히 나타나고, 소득 면에서는 2위인 영남권과 3위인 충청·강원권의 차이가 미세하게 나타났다. 이를 토대로 거주지에 따른 관광행태가 지역 간의 소득 수준, 교육수준에 따라 어떤 특성을 보이는지를 알아보는 것이 매우 가치가 있다고 본다.

이를 토대로 관광행태에 미치는 거주지 특성의 영향력 차이를 비교하기 위한 기준 자료를 다음과

같이 선택하였다. 도시·농촌별로는 교육수준이나 소득수준이 같은 차이를 보이고 있으므로 7대도시 \geq 시부 > 군부의 순서를 적용하기로 하였는데, 여기서 ' \geq '는 차이가 비슷함을 의미한다. 권역별로는 교육수준에 의한 차이는 비교의 의미가 없으므로 기각하고, 소득수준에 의한 수도권 > 영남권 \geq 충청·강원권 > 호남권의 순서를 적용하였다. 여기에서도 영남권과 충청·강원권은 비슷한 수준으로 보았다. 이 기준에 의해 제3절에서 관광행태에 미치는 거주지 특성의 영향력 차이를 분석하여 도시·농촌별과 권역별 중 어떤 특성이 관광행태에 영향력을 더 많이 미치는가에 대해 알아보았다.

〈표 5〉 권역별 교육년수 비교

4. 거주지에 따른 관광행태의 차이

고 할 수 있다. 이 역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다 ($p=0.000$).

1) 해외여행경험

<표 6>는 거주지 특성에 따른 해외여행경험의 차이를 보여주고 있는데, 도시·농촌별로는 7대도시(33.3%)가 농촌(25.6%)에 비해 해외여행경험이

2) 가족여행경험

거주지 특성에 따른 가족여행경험은 <표 7>와 같은데, 도시·농촌별로 보면 시부(47.7%)와 7대도

<표 6> 거주지 특성에 따른 해외여행경험

변수	구분	해외여행경험(%)		합계			유의수준
		있다	없다	%	N	무응답	
도시·농촌	7대도시	33.3	66.7	100.0	679	1	0.013
	시부	26.2	73.8	100.0	535	0	
	군부	25.6	74.4	100.0	156	1	
	전체	29.6	70.4	100.0	1370	2	
권역	수도권	38.1	61.9	100.0	632	3	0.000
	영남권	24.1	75.9	100.0	399	0	
	충청·강원권	22.1	77.9	100.0	181	0	
	호남권	17.8	82.2	100.0	157	0	
	전체	29.6	70.4	100.0	1369	3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대도시의 주민이 농촌의 주민보다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고, 직업상 업무 여행 등의 이유로 여행경험이 많다는 것을 말해준다. 도시·농촌별 여행경험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다 ($p=0.013$).

권역별로는 수도권(38.1%) 주민이 가장 많은 여행경험을 보이고 있고, 호남권(17.8%)이 가장 적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권역별로 그 격차가 매우 크다. 우리나라의 사회 전반에 나타나는 지역격차는 해외여행경험 면에서도 분명히 드러났다. 지역에 따른 소득수준의 차는 여행경험의 차이를 가져온다

시(46.8%)가 군부(35.0%)보다 비율이 높았으며, 그 차이는 12% 정도로 크게 나타나고 있다 ($p=0.015$). 이는 소득과 교육수준, 그리고 자녀에 대한 교육열 등이 농촌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도시의 부모들이, 관광을 통한 교육 효과에 대한 긍정적인 기대를 지니고 있음을 반영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노년층이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농촌은 도시의 자녀들과 격리되어 살고 있으므로 가족여행의 경험이 적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권역별로 분석해 보면 역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는데 ($p=0.002$), 수도권(50.9%)에서

<표 7> 거주지 특성에 따른 가족여행경험

변수	구분	가족여행경험(%)		합계			유의수준
		있다	없다	%	N	무응답	
도시·농촌	7대도시	46.8	53.2	100.0	680	0	0.015
	시부	47.7	52.3	100.0	535	0	
	군부	35.0	65.0	100.0	157	0	
	전체	45.8	54.2	100.0	1372	0	
권역	수도권	50.9	49.1	100.0	635	0	0.002
	영남권	43.4	56.6	100.0	399	0	
	충청·강원권	37.0	63.0	100.0	181	0	
	호남권	40.8	59.2	100.0	157	0	
	전체	45.7	54.3	100.0	1372	0	

가장 비율이 높고, 충청·강원권(37.0%)이 가장 낮게 나타났으며 그 차이가 크다. 도시·농촌별 가족여행경험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도시 주민은 농촌 주민에 비해 여행경험이 많다. 따라서 수도권은 도시의 밀집도가 높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농촌지역이 많이 포함된 다른 지역보다 가족여행경험의 비율이 높을 것이다. 여행경험은 소득수준이나 교육수준에 비례하기 때문에 수도권은 다른 지역에 비해 가계의 소득 중 관광에 소비하는 비율도 다른 지방보다 높을 수밖에 없다. 또한 다른 지역에 비해 교육수준이 높고 자녀교육에 대한 관심이 많아 가족여행의 경험이 많다.

3) 여행 동반자

<표 8>는 거주지에 따른 여행동반자 유형인데, 도시·농촌별로 보면 혼자나 친구/애인과의 여행은 7대도시(24.2%)가 가장 높고 군부(11.6%)가 낮았는데, 그 차이가 심하다. 친목단체를 통한 여행은 군부(32.9%)가 7대도시(21.1%)나 시부(21.9%)에 비해 그 비율이 매우 높게 나타났으나, 반면에 가족동반의 경우는 도시·농촌 간에 별다른 차이를 보이지 않고 있다.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고 있는데($p=0.001$), 도시민들은 개인주의적 성향이 두드러지고, 농촌이나 지방에는 아직도 전통적인 혈연, 지연에 의존하는 경향이 강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권역별로도 유의미한 통계적 차이를 보이고 있으나($p=0.000$), 혼자 또는 친구/애인과의 여행은 충청·강원권(28.7%)이 수도권(21.8%)보다 오

히려 높게 나타나고 있다. 또한 가족동반에서도 지역 간의 차이는 크게 나타나지 않고 있다. 반면에 친목단체와의 여행은 가장 비율이 높은 호남권(32.2%)과 가장 낮은 수도권(17.8%)이 매우 심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따라서 권역별 여행동반자의 유형에 관한 조사에서는 친목단체의 경우에서만 그 차이가 두드러지게 나타날 뿐, 혼자 또는 친구/애인이나 가족동반의 경우에는 별다른 차이를 보이지 않고 있다.

4) 목적지 선택 유형

관광행태 중에서도 관광자가 복수 목적지를 선택하느냐 또는 단일 목적지를 선택하느냐는 것은 개인의 사회·경제적 특성에 따라서 차이가 나타날 것이다. 그렇다면 관광자 거주지의 경제, 문화, 교육 수준 등의 특성에 의해서도 영향을 받을 것이라고 추정해볼 수 있다. <표 9>는 거주지 특성에 따른 목적지 선택유형을 조사한 결과이다.

전체적으로는 단일목적지보다 복수목적지를 선호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예상과는 달리 목적지 선택유형에서는 도시·농촌별($p=0.359$)로나 권역별($p=0.876$)로 집단 간의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목적지 선택은 거주지 차이에 의한 관광행태라기보다는 관광자의 개인적 특성에 의한 행태라고 할 수 있을 것 같다.

5) 여행 정보

거주지 특성에 따른 여행정보구득유형은 <표

<표 8> 거주지 특성에 따른 여행동반자 유형

변수	구분	여행동반자 선택(%)			합 계			유의수준
		혼친애	가족	친목단체	%	N	무응답	
도시·농촌	7대도시	24.1	54.8	21.1	100.0	673	7	0.001
	시부	19.1	59.0	21.9	100.0	517	18	
	군부	11.6	55.5	32.9	100.0	155	2	
	전체	20.8	56.5	22.8	100.0	1345	27	
권역	수도권	21.5	60.7	17.8	100.0	629	6	0.000
	영남권	18.6	56.7	24.7	100.0	388	11	
	충청·강원권	28.7	44.3	27.0	100.0	174	7	
	호남권	14.5	53.3	32.2	100.0	152	5	
	전체	20.8	56.6	22.6	100.0	1343	29	

〈표 9〉 거주지 특성에 따른 목적지 선택유형

변수	구분	목적지 선택유형(%)		합 계			유의수준
		단일목적지	복수목적지	%	N	무응답	
도시·농촌	7대도시	45.0	55.0	100.0	651	29	0.359
	시부	49.2	50.8	100.0	508	27	
	군부	46.2	53.8	100.0	143	14	
	전체	46.8	53.2	100.0	1302	70	
권역	수도권	47.4	52.6	100.0	620	15	0.876
	영남권	44.9	55.1	100.0	372	27	
	충청·강원권	47.6	52.4	100.0	168	13	
	호남권	47.2	52.8	100.0	142	15	
	전체	46.7	53.3	100.0	1302	70	

10>과 같다. 도시·농촌별로는 통계적으로도 유의한 차이를 보였는데($p=0.000$), 친구/친지에 의존하는 경우는 군부(62.0%)가 가장 높고 7대도시(40.0%)가 가장 낮았다. 메스컴 의존도는 7대도시(26.2%)가 가장 높고 농촌(16.7%)이 가장 낮았으며, 최근 이용도가 급격히 늘어나고 있는 인터넷 의존도는 7대도시(10.5%)가 농촌(4.0%)에 비해 2배 이상 높았다. 여행서적에 대한 의존도도 7대도시(15.7%)가 군부(5.3%)에 비해 월등히 높았다. 이상의 결과는 도시와 농촌이 교육이나 소득수준 면에서 차이가 크다는 데서도 그 이유를 찾을 수 있겠지만, 도시에 비해 농촌지역이 관광에 관한 각종 정보의 보급 면에서 매우 뒤떨어짐을 반영해 준다.

권역별로도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다($p=0.001$). 친구/친지 의존도 면에서 충청·강원권(53.2%)과 호남권(50.3%)은 비율이 높았고 수도권(38.7%)이 낮았으며, 메스컴 의존도는 수도권(27.1%)이 가장 높고 충청·강원권(15.8%)이 낮았

다. 인터넷 의존도는 가장 높은 수도권(12.2%)과 가장 낮은 호남권(3.5%)의 차이가 아주 크게 나타났다. 여행서적에 대한 의존도는 타지역에 비해 특히 호남권만이 가장 낮게 나타났다. 이는 여행정보의 질적 측면에서 권역별 차이를 뚜렷이 보여주고 있는데, 호남권이나 충청·강원권이 타 지역에 비해 관광정보를 접할 기회가 적다는 것을 보여준다.

6) 교통 수단

거주지 특성에 따른 교통수단이용은 <표 11>과 같다. 자가용을 대중교통보다 더 선호하는 것은 시부(64.2%)와 7대도시(58.7%)이고, 군부(42.9%)는 자가용 이용도가 낮았다. 도시와 농촌간의 자가용 보급률의 차이는 관광을 위한 교통수단의 이용 면에서도 격차를 보이고 있다. 또한 친목단체 여행을 선호하는 농촌 주민이 대중교통을 많이 이용한다

〈표 10〉 거주지 특성에 따른 여행정보 구득유형

변수	구분	여행정보 구득유형(%)						합계			유의수준
		친지	메스컴	인터넷	여행서적	팝프렛	기타	%	N	무응답	
도시 농촌	7대도시	40.0	26.2	10.5	15.7	4.3	3.3	100.0	657	23	0.000
	시부	44.9	22.5	9.8	12.2	6.5	4.1	100.0	510	25	
	군부	62.4	16.1	4.0	5.4	6.7	5.4	100.0	149	8	
	전체	44.5	23.6	9.5	13.1	5.4	3.9	100.0	1316	56	
권역	수도권	38.6	27.2	12.2	14.0	4.9	3.1	100.0	614	21	0.001
	영남권	47.8	22.0	7.5	13.4	4.7	4.7	100.0	387	12	
	충청·강원권	52.9	16.3	9.3	12.2	5.8	3.5	100.0	172	9	
	호남권	50.3	22.4	3.5	9.1	9.1	5.6	100.0	143	14	
	전체	44.5	23.7	9.5	13.1	5.4	3.9	100.0	1316	56	

〈표 11〉 거주지 특성에 따른 교통수단이용

변수	구분	교통수단이용(%)		합 계			유의수준
		자가용	대중교통	%	N	무응답	
도시 농촌	7대도시	58.7	41.3	100.0	669	11	0.000
	시부	64.2	35.8	100.0	519	16	
	군부	42.9	57.1	100.0	156	1	
	전체	59.0	41.0	100.0	1344	28	
권역	수도권	64.5	35.5	100.0	628	7	0.000
	영남권	58.1	41.9	100.0	389	10	
	충청·강원권	50.0	50.0	100.0	176	5	
	호남권	49.3	50.7	100.0	150	7	
	전체	59.0	41.0	100.0	1343	29	

고 생각된다.

권역별로는 수도권(64.5%)이 자가용 이용도가 가장 높고, 영남권(58.1%)이 그 다음으로 나타났으며, 충청·강원권(50.0%)과 호남권(49.3%)이 낮은 비율을 보였다. 이는 통계적으로도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p=0.000$) 특히 충청·강원권과 호남권에서 자가용 이용도가 낮게 나타나는 점은 이 지역들이 타 지역에 비해 경제적으로 소외된 지역이라는 일반적인 견해를 입증해 주는 것이라고 생각된다.

7) 구매 활동

(1) 특산품 구매활동

거주지 특성에 따른 특산품 구매활동〈표 12〉은 도시·농촌별($p=0.038$)로는 통계적으로 다소 차이점을 보이나, 권역별($p=0.416$)로는 유의한 차이점을 보이지 않았다. 도시·농촌별 차이를 보면 농촌이 오히려 도시보다 더욱 높은 비율을 보였다. 권역별로 차이를 보이지 않은 것은 특산품 구매활

동이 거주지별 특성보다는 개인적 선호에 의해 결정되는 관광행태라는 것을 암시해준다.

(2) 특색있는 음식 구매 활동

거주지 특성에 따른 특색있는 음식의 구매활동은 〈표 13〉과 같은데, 도시·농촌별로는 7대도시(35.1%)가 가장 높고, 시부(28.6%)와 농촌(30.8%)이 다소 낮게 나타났다. 이는 거주지의 사회·경제적 특성과 다소 다른 결과인데, 통계적으로는 유의한 차이가 있다고는 하나($p=0.001$), 비교 분석 결과는 도시와 농촌간에 음식구매활동에 있어 큰 차이는 없다고 할 수 있다. 권역별로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있으나($p=0.000$), 수도권(35.9%)이 다른 지역에 비해 다소 높을뿐, 큰 차이는 없다.

5. 관광행태에 미치는 거주지 특성의 영향력 차이

1) 분석 방법

〈표 12〉 거주지 특성에 따른 특산품 구매활동

변수	구분	특산품구매(%)		합 계			유의수준
		사온다	사오지않는다	%	N	무응답	
도시·농촌	7대도시	50.4	49.6	100.0	669	11	0.038
	시부	49.8	50.2	100.0	520	15	
	군부	61.0	39.0	100.0	154	3	
	전체	51.4	48.6	100.0	1343	29	
권역	수도권	49.0	51.0	100.0	628	7	0.416
	영남권	54.1	45.9	100.0	390	9	
	충청·강원권	51.7	48.3	100.0	174	7	
	호남권	53.6	46.4	100.0	151	6	
	전체	51.4	48.6	100.0	1343	29	

<표 13> 거주지 특성에 따른 특색있는 음식 구매활동

변수	구분	음식구매(%)			합계			유의수준
		반드시	눈에띄면	신경안씀	%	N	무응답	
도시·농촌	7대도시	35.1	44.4	20.5	100	666	14	0.001
	시부	28.6	45.5	25.9	100	517	18	
	군부	30.8	34.6	34.6	100	156	1	
	전체	32.1	43.7	24.2	100	1339	33	
권역	수도권	35.9	46.6	17.5	100	629	6	0.000
	영남권	28.1	45.2	26.8	100	385	14	
	충청·강원권	29.4	38.4	32.2	100	177	4	
	호남권	30.2	33.6	36.2	100	149	8	
	전체	32.2	43.7	24.2	100	1340	32	

앞에서 거주지의 사회·경제적 특성의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 소득수준과 교육수준의 차이를 분산분석에 의해 알아보았다. 그 결과 평균차가 도시·농촌의 경우는 7대도시>시부>군부의 순으로 나타났고, 권역별로는 교육수준 면에서는 별다른 차이를 발견하지 못했으나 소득수준 면에서는 수도권>영남권>충청·강원권>호남권 순이었다. 일반적으로 지역의 소득이나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관광에 소비하는 비용이 많다는 것을 전제로 한다면, 이 결과를 관광행태의 차이에도 적용해 볼 수 있다.

먼저 '도시·농촌별 차이 = 7대도시>시부>군부 또는 그의 역순, 권역별 차이 = 수도권>영남권>충청·강원권>호남권 또는 그의 역순'이라는 기준을 설정하고, 이 기준을 각 관광행태의 차이와 비교하였다. 이 두 가지가 일치하면 관광행태에 미치는 거주지 특성의 영향력이 있는 것으로 간주하고, 일치하지 않으면 영향력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였다. 이를 다시 종합하여 도시·농촌별과 권역별 중 어떤 것이 관광행태에 영향력을 더 크게 미치는가를 알아보았다.

2) 거주지 특성의 영향력 차이

앞서 밝힌 분석 방법에 의해 거주지 특성이 관광행태에 미치는 영향력을 알아보기 위해 거주지의 사회·경제적 차이와 관광행태의 차이를 서로 비교하여 일치여부를 확인하였다. 그 결과 <표 14>와 같이 도시·농촌별의 경우는 일치하면 '①'

로, 일치하지 않으면 '②'로 표기하였으며, 권역별의 경우는 일치의 경우 'A'로, 불일치의 경우는 'B'로 표기하였다. 이로 인해 일치하는 경우는 관광행태에 영향력이 있는 것으로 간주하였다.

도시·농촌별 특성이 관광행태에 미치는 영향력을 알아본 결과, 총 14 종류 중 여행동반자유형에서 가족, 목적지선택유형, 교통수단이용 등 3종류만을 제외한 대부분의 행태에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와 반대로 권역별로는 해외여행경험, 여행정보유형에서 인터넷과 여행서적, 교통수단 등 4종류에만 영향력을 미칠 뿐, 나머지는 별다른 영향력을 보이지 않고 있었다. 이 결과로 미루어보면 관광행태는 권역별 특성보다 도시·농촌별 특성에 의해 영향을 많이 받는다고 할 수 있다.

우리나라는 그 동안 형평성보다는 효율성에 중점을 둔 국토개발을 수행함에 따라 수도권과 영남권의 개발에 치중하였으며, 그로 인해 필연적인 지역 격차가 발생하였다. 또한 세계에서 유래가 없는 높은 산업의 성장률은 도시화의 가속화를 가져왔고, 모든 기능이 도시로 집중하여 도시와 농촌간의 격차도 크게 심화시켰다. 따라서 앞으로 지역 간의 균형개발에 목표를 둔 정책을 수행해야 함에 있어 관광행태 면에서의 지역차도 극복해야 할 중요한 과제라고 하겠다.

6. 요약 및 결론

관광자의 거주지 특성에 따른 관광행태의 차이

〈표 14〉 관광행태에 미치는 거주지 특성의 영향력 차이

관광행태		거주지별	영향력 여부	비고
해외여행경험		도시·농촌별	①	
		권역별	Ⓐ	
가족여행경험		도시·농촌별	①	
		권역별	Ⓑ	
여행동반자	혼자/친구/애인	도시·농촌별	①	
		권역별	Ⓑ	
	가족	도시·농촌별	②	
		권역별	Ⓑ	
	친목단체	도시·농촌별	①	
		권역별	Ⓑ	
목적지선택		도시·농촌별	②	
		권역별	Ⓑ	
여행정보	친지	도시·농촌별	①	
		권역별	Ⓑ	
	메스컵	도시·농촌별	①	
		권역별	Ⓑ	
	인터넷	도시·농촌별	①	
		권역별	Ⓐ	
	여행서적	도시·농촌별	①	
		권역별	Ⓐ	
	팜프렛	도시·농촌별	①	
		권역별	Ⓑ	
교통수단		도시·농촌별	②	
		권역별	Ⓐ	
특산품구매		도시·농촌별	①	
		권역별	Ⓑ	
음식구매		도시·농촌별	①	
		권역별	Ⓑ	
※ 도시·농촌별 영향력 여부 ① 7대도시>시부>군부 또는 역순과 일치함 - 영향력 있음 ② 일치하지 않음 - 영향력 없음 ※ 권역별 영향력 여부 Ⓐ 수도권>영남권>충청·강원권>호남권 또는 역순과 일치함 - 영향력 있음 Ⓑ 일치하지 않음 - 영향력 없음				

를 알아보기 위해 설문조사와 통계적 기법을 통해 연구하였다. 전국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관광행태를 해외여행경험, 가족여행경험, 목적지 선택유형, 여행정보 구독유형, 여행 동반자 유형, 교통수단이용, 구매활동 등으로 구분하여 관광자의 거주지 특성에 따른 이들의 차이를 각종 통계 분석을 통해 연구하였다. 그 결과 나타난 사실을 요약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해외여행경험은 수도권과 타 지역, 도시와 농촌 간의 차이가 매우 심하게 나타났다. 이는 지

역에 따른 경제적 격차가 해외여행경험 면에서도 분명히 드러난다는 사실을 증명해주었다. 그러나 가족여행경험은 도시·농촌별로는 그 격차가 매우 컸으나, 권역별로는 수도권을 제외하고 타 권역간에 큰 차이를 나타내지 않았다.

둘째, 여행동반자 유형에서는 혼자/친구/애인의 경우는 도시가 농촌보다 그 비율이 높았고, 친목단체의 경우는 농촌이 도시보다 높았으며, 가족동반의 경우는 별다른 차이를 나타내지 않았다. 권역별로는 친목단체의 경우는 호남권>충청·강원권>영

남권>수도권의 순서로 나타났으나, 혼자/친구/애인과 가족동반의 경우는 이와는 달리 불규칙적인 분포를 나타냈다.

셋째, 여행정보 구득유형에서는 구체적인 정보매체인 인터넷, 메스컴, 여행서적 등은 도시가 농촌보다 그 비율이 높고, 권역별로도 호남권이나 충청·강원권보다 수도권이나 영남권이 높았다. 그러나 친구나 친지에 대한 의존도는 이와 반대로 나타났다.

넷째, 교통수단의 이용 면에서는 자가용 이용도가 도시가 농촌보다, 수도권이 다른 권역보다 그 비율이 더 높게 나타났다. 이는 지역 간의 사회·경제적 차이가 교통수단의 이용 면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남을 증명해주었다.

다섯째, 구매활동의 경우 특산품 구매활동은 농촌이 도시보다 더 적극적이었고, 권역별로는 차이점이 나타나지 않아 거주지의 특성보다는 개인의 선호에 의해 더 좌우된다는 사실을 알았다. 또한 음식구매활동은 거주지 특성에 따른 차이가 크지 않았다.

여섯째, 관광행태에 미치는 거주지 특성의 영향력 차이를 알아본 결과, 총 14종류의 행태 중, 도시·농촌별 특성의 영향력이 큰 경우가 11종류, 권역별 특성의 영향력이 큰 경우는 4종류이었다. 이는 관광행태가 권역별보다는 도시·농촌별 특성의 차이에 따라 좌우된다는 것을 말해주는데, 이에 따른 균형적인 경제개발과 관광 정책의 필요성을 암시해주었다. 관광상품의 개발이나, 관광지의 특성화 등의 정책을 수립할 때 이러한 요인들이 적극 반영되어야 할 것이다.

‘한국방문의 해’로 지정된 2001년은 ‘관광 한국’을 세계에 널리 알리고, 해외 여행자들의 유입을 위해 노력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국내 여행자들이 상대적 박탈감을 갖지 않도록 여행의 기회를 균등하게 배분함으로써 국민적 자존심을 회복시키는 것이 선행되어야 할 것 같다. 지역 차의 해소를 위한 균형개발 측면에서 본다면 본 연구의 결과는 지극히 지협적인 문제만을 다루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관광행태 면에서도 지역 차가 발생하고 있다는 점을 제시함으로써 이를 차후 국토개발의 정책에 하나의 과제로 삼았으면 하는 바램이다.

註

- 1) 1970년대 후반부터 국민관광의 분위기가 전반적으로 고조되어 관광이 대중화됨에 따라 1970년에는 3,872만 명에 불과하던 국민관광객이 1990년대 후반에 IMF 한파의 영향으로 다소 주춤했다가, 다시 회복세로 접어들어 1999년에는 국민 총 관광객 수가 2억 7,260만 명에 달하게 되었다.
- 2) 1차 국토종합개발계획은 서울, 부산 등 성장거점 위주의 성장을 유도하는 정책이었기 때문에 지역격차의 발생은 필연적이었다. 특히 산업의 고도성장과정에서 도시화의 속도가 빨라져 도시와 농촌간의 격차는 더욱 심화되었다. 2차와 3차의 국토종합개발계획에서 이 문제를 완화시키기 위한 균형개발방식을 사용했으나 효과가 적었다.
- 3) 정보통신부가 국회에 제출한 국정감사자료에 따르면 2000년 9월 8일 현재 초고속인터넷 가입비율은 서울시의 경우 가장 많은 22.08%의 가구당 가입비율을 나타냈으며, 부산·대구·인천·광주·대전·울산 등 6대 광역시의 경우는 19.92%에 달했다. 반면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수도권 신도시가 많은 경기도만 12.86%의 가구당 초고속인터넷 가입비율을 나타냈을 뿐 대부분이 10% 이하였다. 특히 충남·전북·경남·경북은 6%대에 그치는 등 저조한 양상을 나타냈다.
- 4) 소득수준, 교육수준, 직업에 따라 점수를 부여한 다음, ‘SES 점수=소득+교육+직업/3’에 의해 상층, 중상층, 중하층, 하층의 4 계층으로 분류함.
- 5) 한상일(1986), 이미혜(1987), J. B. Lansing과 D. M. Blood(1964), Bentley(1977), J.H. Earp, R.D. Hall, M. McDonald(1976), W. R. Darden와 W. D. Perreault Jr.(1975), R. L. Jenkins(1993), E. J. Mayo와 L. P. Jarvis(1981) 등.
- 6) 통계청 보도자료(2000. 12. 27.), 1999년 16개 시·도별 지역내 총생산(잠정)에 의함.

文獻

강신겸, 1997, 지역활성화를 위한 지역관광개발 전략, 삼성경제 제 61호.

김성혁, 1994, 관광학 원론, 형성출판사.

김용상, 1999, 관광학, 서울, 백산출판사.

김홍운, 1994, 관광지리학, 서울, 일신사, 207-208.

교통부, 1986, 1986년도 관광동향에 관한 연차 보고서, 서울, 62.

박현정, 1993, 사회계층별 관광행태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경기대학교.

손대현, 1998, 여가 관광심리학, 서울, 백산출판사.

신현주, 1993, 박시범, 라이프스타일과 레저활동유

- 형간의 관련성 연구, 관광학연구, 제17호, 158.
- 오남삼, 1991, 관광지 주민의 관광행태에 관한 연구, 박사학위논문, 서울대학교, 118-119.
- 이미혜, 1987, 관광여행자의 개성이 관광여행행태결정에 미치는 영향연구, 관광학연구 제11호, 93-97.
- 한국관광공사, 1999, '99 국민 여행 실태 조사, 서울, 38.
- 한상일, 1986, 국내관광자의 여행목적지 선택성향에 관한 실증적 연구, 박사학위논문, 한양대학교.
- 허길석, 1972, 덕산지역의 관광지 연구, 석사학위논문, 고려대학교, 1-53.
- 홍승운, 1977, 제주도 관광지역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경희대학교, 1-54.
- 末武直義, 1980, 観光論 入門, 法律文化社, 京都, 8-13
- Bennet, P.D. & Kassarian, H.H., 1972, Consumer Behavior, New Jersey, Prentice-Hall, Inc., Englewood Cliffs.
- Bentley, G.A., Bruce, A. & Jones, D.R., 1977, Intra-Urban Journeys and Activity Packages, Socio-economic Planning Sciences, 11: 213-220.
- Bukart, A.J. & Medlik, S., 1980, Tourism : Past, Present and Future, London, Heineman, 41.
- Casson, L., 1974, Travel in the Ancient World, London, Allen & Unwin.
- Darden, W.R. & Perreault, Jr., W.D., 1975, A Multivariate Analysis of Media Exposure and Vacation Behavior with Lift Style Covariates, Journal of Consumer Research, 2(2): 93-103.
- Freedman, R., Hawley, A. H., Landecker, W. S. & Lenski, G. E., 1956, Principles of Sociology, New York, 231.
- Grinstein, A., 1955, Vacations : a Psycho-Analytic Study, International Journal of Psycho-Analysis, 36: 177-186.
- Jansen - Verbeke, M.J. & Dietvorst, A., 1987, Leisure, recreation, tourism : A geographic view on integration, Annal of tourism research, 14: 361-375.
- Jenkins, R.L., 1993, Family Vacation Decision-Making, Journal of Travel Research, 16(4): 2-7.
- Levy, S. J., 1966, Social Class and Spending Behavior, in On Knowing the Consumer, ed., New York, John Wiley & Sons, Inc.
- Lundberg, D. E., 1972, The Tourist Business, Institution Volume of Feeding Management Magazine.
- Maslow, A.M., 1954, Motivation and Personality, Harper & Row Publishers Inc.
- Mayo, E.J., 1975, The Attractiveness of the Far-Off Destination : A Study of Subjective Distance, A Paper presented at the sixth Annual Conference of the Travel Research Association, San Diego.
- Mayo, E.J. & Jarvis, L.P., 1981, The Psychology of Leisure Travel : Effective Marketing and Selling of Travel Services, Boston, CBS.
- McIntosh, R.W., Goeldner, C.R. & Ritchie, J.R.B., 1995, Tourism : Principles, Practices, Philosophies, Chapter 9, New York, John Wiley & Sons, Inc., 226-227.
- Pearce, D. P. & Butler, R. W., 1993, Tourism Research, Association with the International Academy for Study of Tourism, London and New York, 9-18.
- Rafferty, M., 1993, A Geography of World Tourism, New Jersey, Prentice Hall, 7.
- Robertson, T.S., 1970, Consumer Behavior, Illinois, Scott, Foresman & Company.
- Rowling, M., 1971, Everyday Life of Mediaeval Travellers, London, B.T. Batsford.
- Shivers, J.S. , 1981, Leisure and Recreation Concepts, Boston, Allyn and Bacon, 179-210.
- U.S. Bureau of the Census, 1993, Statistical Abstract of the United States, 112th edition, Washington D.C., U.S. Government Printing Office, 153-174.
- Wells, W.C. & Gubar, G., 1966, Life Cycle Concept in Marketing Research, Journal of Marketing Research, 3: 355-363.

(2002년 1월 20일 접수)